조선일보 - 1929. 11. 21/ 4면/ 7단

善惡-倫理學的 硏究 (九)

韓稚振

어느 누가 賣國賊을 볼 때에 憤怒하지 안이할 사람이 잇스랴. 그 憤怒는 自己 個我가 發한 我衆 卽 社會를 愛하는 것이 說明됨이요, 비록 利己的으로 賣國까지 한 其者도 꼭 自己만 爲하는 것이 안이라 적어도 自己의 家族을 利하려고 하나니, 이것을 보아서 사람이나 動物을 莫論하고 純 利己者는 업다하여도 無妨하겟다. 但 그 利害의 範圍만 보고서 하나는 더 愛他的이요, 다른 하나는 더 利己라 하는 것이다.

勿論 世上에는 自己보다 他를 더 爲하는 이가 잇슴은 事實이나 그러나 如此한 爲他를 自己라는 立地를 써낫다고는 할 수 업다. 愛他하는 것도 自己가 하는 것이요 利己하는 것도 自己가 하는 것인즉, 이 點에 잇서서는 活動이라는 것은 모다 個我的 意味가 包含한 것이다. 그러고 그러케 自己가 하는 活動에는 自己的 色彩가 濃厚할 것은 勿論이요 따라서 愛가 되는 때에 利他도 되는 것이다. 根本的으로 論하면 모다 利己이되 우리가 主張하는 利己意義의는 以上의 解釋과 如한 故로 『함쓰』의 利己主義를 써난 精神的 利己主義 或 利己愛他合同主義라 칭함이.....<이하 원본에 누락>